강점혁명인가 약점혁명인가?

(시편 32:1~11)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강점혁명인가 약점혁명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강점혁명인가 약점혁명인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StrengthsFinder 2.0"입니다.
'강점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2.0'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혁명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34가지로 세밀하게 분류하고, 과연 내 안에는 어떤 강점의 항목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재능으로 발전시키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혁명적 변화는 강점을 발견해서 재능으로 발전시킨다고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인생의 혁명적 변화는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잊지 않고 처신함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류역사상 최고의 발견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인류역사가 진행되어온 기본 바탕을 에덴 밖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밖에서 살게 된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불을 꼽을 것이고 전기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구는 에디슨이 발명했지만

전기는 역사적인 누적과정을 통해 발견된 것입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했고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푸른곰팡이를 발견하여 인류건강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대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죄입니다.
내 인생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은 30대 중반의 무명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죄를 발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고 불가항력적으로 몸부림치다가 일어난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사건은 유럽에 지진을 일으켰고 세계사의 방향을 틀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해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아마 칭기즈칸이나 알렉산더조차도 루터만큼 인류역사에 지대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했지만 루터는 자신의 죄인 됨을 발견하였을 뿐입니다. 자기 안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강점을 발견하고 재능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인 죄를 발견할 때에 인생의 위대해짐은 열립니다. 위대해지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창조주께서 본래 염두에 두셨던 본래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을 때에 가장 위대한 존재이자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생의 혁명은 강점을 발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 중의 약점인 죄를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류역사상 최고의 발견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건은 사실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발견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인생을 책임지고 땀 흘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죄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주어진 낙원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장갑되는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죄를 짓는 바람에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도, 지나고 보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일생일대의 실책인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던 회개와 그로 인해 주어진 죄 사함의 기쁨을 노래한 참회시입니다. 또한 다윗은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죄임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혁명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기계발서를 찾아 헤맬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내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위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본래의 자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죄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구절이 필요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1절과 2절의 의미에 능통할 수 있다면 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죄를 허물, 죄, 정죄의 세 가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을 알아야 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가 십자가 생활화라는 단 하나의 모토만 붙잡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며 삶이 복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십자가 생활화라는 하나의 구절을 모토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많이 자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삶의 체험적 차원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르고 죄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극심하게 반복되고 기세등등하게 활성화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알아도 생활화되지 않는 십자가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솨'로서 '반역하다, 거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솨'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같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권유합니다. 청유합니다. 여기서 권유적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등을 돌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공상태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흡입력이 작용하므로 주입구가 있습니다. 주입구가 있어야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진공상태의 마음속으로 무엇이든 끌어들여서 채워야 만족이 이루어지고, 만족이 유지될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 마음을 의식하며 죄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끌어들이고 빨아들여서 채워야만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과 기쁨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등을 돌린 것을 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은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 남편 몰래 밧세바를 훔쳐 와서 도둑질했을 뿐 아니라 이웃의 집을 탐냈고, 우리야를 죽여서 살인을 했고 우리야를 생각하는 척하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악의 종합세트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발견합니다.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은 곧 계명의 전체입니다. 나머지 계명들은 제1계명을 어겼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다윗이 간음죄 등을 저지른 것은 제1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회개는 우리야와 밧세바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야와 밧세바에게 행한 죄를 두고 자신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고백하였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시도록 마음의 주입구는 하나님을 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바람에 두 번째 죄의 단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아'라고 하는데 '하타'라는 '표적을 빗 맞추다, 길을 잃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은 무엇이든 끌어들여야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다윗은 마음의 채울 거리를 찾아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여인을 마음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빗나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의 흡입력이 작용하는데 무엇을 흡입할 것인가 과녁을 정함에 있어서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하는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부패하고 더러워지면서 독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비행기를 타면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배 안에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독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집니다.
즉 죄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나머지 계명들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신을 내 손에 쥐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세 번째 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죄는 히브리어로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민에게만 적용되는 죄의 개념입니다. 앞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흡입해야 하는 마음의 주입구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한 것이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과녁들을 붙잡습니다. 돈 자녀 건강 권력 승진 취직 등을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며 빨아들이려는 것이 곧 표적을 빗맞히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 전체가 범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정죄 곧 왜곡함과 구부러진 상태를 간사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간사함은 하나님이 선민을 보실 때에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간사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기 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곡되고 구부러진 자들로서 간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음을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선을 보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기쁨과 만족거리를 돈에서 찾고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신이 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곧바로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돈을 향해 구부러져버린 것으로서 히브리어로는 '아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간사한 자들로 여기시며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교회의 실패는 기쁨을 신앙의 핵심으로 붙잡지 않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에덴에 있다가 죄를 짓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인한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신앙의 핵심 문제인 기쁨을 신앙에 따라오는 부속물 정도로서 취급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는가가 죄가 성립하는 장소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바로 신입니다. 기쁨과 만족은 직접적으로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늘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 해서 돈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자녀가 형통할 때에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죄를 발견한 자의 입에서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은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의 문제가 재미있습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는 말에서 죄 사함의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죄 사함에 관한 단어도 역시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함을 얻고, 가려진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등을 돌리는 것이고, 과녁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간사함을 떠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께로 마음이 똑바로 향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갔던 마음이 하나님을 수단 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돈 건강 취직 승진 등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이것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음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부르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죄악들이 이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져서 오는 간사함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

는 선민 안에서 발생하는 죄악입니다.
이 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 속의 죄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등지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과녁을 향하여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께 직선으로 가지 않고 구부러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부러져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 죄악을 발견하는 사람이야 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위한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불의 발견, 전기의 발견, 푸른곰팡이를 발견한 것도 대단하지만 내 속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야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 때에 계획하신바대로 되돌려 놓는 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발견한 자로서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죄의 올바른 대처를 통하여 에덴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